

# 다니엘 케이 다르코 박사, 감옥서신, 10차, 복음 전파, 빌립보서 1장

© 2024 댄 다르코(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여기는 Dan Darko 박사와 그의 감옥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입니다.

여기는 세션 10, 복음의 진전, 빌립보서 1장입니다.

성경 연구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서론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루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대한 마지막 강의의 끝을 기억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빌립보서의 구조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제가 보여드렸듯이,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구조는 일반적으로 개요로 여겨지며, 저는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 강의의 마지막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내용에 비추어 바울과 로마에서의 그의 투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소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 여러 곳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매우 확신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그가 체포된 것은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대한 공부나 사도행전에 대한 개인적인 독서를 기억한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 문제에 휘말려 감옥에 갇히고 실제로 채찍질을 당할 준비가 된 세션을 접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의 시작 부분으로 돌아가서, 제가 로마 시민의 권리 중 일부는 채찍질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언급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은 그 권리를 주장하는 데 매우 영리했습니다. 사실, 그 자신도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논쟁에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도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재판을 받고 지금 막 처벌을 받을 때 로마 시민권을 주장했다면, 여기에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카이사르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호소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울을 로마로 데려와서 투옥이나 가택 연금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12절에서 26절까지 살펴볼 구절에서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알다시피요? 의도한 목적이 복음 전파를 막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은 여전히 알려질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독자의 주의를, 물론 투옥은 고통을 강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 고통을 받는 것은 가치 있는 대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에 이끌렸습니다.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빌립보 교회에 적합한 모델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 강의의 서론에서 빌립보에서 어떤 유대인 전도사가 바울의 복음을 훼손할 어떤 개념을 가지고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예상하거나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식민지로서의 필리피 전투 자체 내에서, 그들은 로마인의 판례법, 로마 시민권의 모든 압력, 국가 시스템의 자부심, 도시에서 로마 활동의 출현과 영향,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억압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특히 1세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역사를 조금 기억한다면, 그것은 교회 역사에 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모르시겠다면,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로마 제국의 이 시기에, 우리는 카이사르가 자신을 사람들이 권력과 권위로 경배하고 존경해야 할 신의 한 형태로 보는 추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 그리고 그 두 줄은 자유롭거나 박해받는 데 필요한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압력이 다가오고, 황제 숭배가 이제 빌립보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

그리스도인들은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고통을 겪고 고통 속에서 은혜를 보고 보여준 적합한 모델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압박과 고통은 멈추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방금 여러분께 큰 단어인 미메시스를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미메시스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좋은 모델로서 지도자나 적합한 인물에게 어필하려는 고대의 기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특히 빌립보서 2장과 3장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볼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볼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자신의 투옥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이 앉아서 오, 불쌍한 바울.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빌립보에 왔다가 실라와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여기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고 지금은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은 멈출 것입니다. 아니요, 바울은 그런 두려움을 완화하고, 실제로 투옥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싶어합니다. 한 영국 학자, FF 브루스는 빌립보서에 대한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바울은 뛰어난 죄수이자 로마 시민이었고, 황제에게 자신의 사건을 들려줄 특권을 행사했으며, 그와 접촉한 모든 사람이 그가 가택 연금에 처한 것이 복음 때문 이지 파괴적인 정치 활동이나 범죄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가 곧 살펴볼 구절에서 매우 명확하게, 그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다는 것을 확립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감옥에 갇힐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내게 일어난 일이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어 온 경비대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갇힘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 대부분은 내가 갇힘으로 주 안에서 확신을 얻었으므로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하는 데 더욱 담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선의로 전파합니다. 후자는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그렇게 합니다.

전자는 이기적인 야망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진심으로가 아니라, 내가 갇힌 것을 괴롭게 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만 거짓으로든 진실로든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기뻐합니다.

와우. 그럼, 바울이 자신의 투옥을 복음의 능력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잠깐 살펴보죠. 복음이 투옥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명확함으로 확립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오히려 복음을 전진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옥의 벽은 복음의 진전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교도관과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가 왜 감옥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것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이유,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 그리고 아마도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타르수스 출신의 일류 교육을 받은 청년으로,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랍비 밑에서 교육을 받을 특권을 누렸고, 바리새인이라 불리는 유대교 운동에서 가장 높은 형태의 규율을 행사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으며,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데 헌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특히 이방인에게 전파하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투옥이 그에게 감옥 경비원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고 말할 기회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때 박해자였고, 그들이 자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를 대비해 바울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말입니다. 복음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막을 수 없었고, 로마의 감옥도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전진하고 있으며, 바울은 주변의 감옥 경비원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와우.

바울은 자신의 투옥에 대해 설명합니다. 만약 그것이 실제로 사람들을 단념시키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들의 부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에 대한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의 투옥은 오히려 그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좀 더 현대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 카에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알 카에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입장에 더 강하게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은 실제로 우리 세계에 더 많은 해를 끼쳤고,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 배치하고 배치하고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카에다는 오늘날의 용어로, 오늘날의 테러리스트 용어로, 폭력을 더 많이 일으킬수록 동조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람들이 그들의 대의를 따르도록 더 많이 참여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북동부에서 알카에다 계열인 보코 하람에 납치된 소녀들이 있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종류의 활동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의 긍정적인 대응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투옥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조성하는 대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는 것에 대해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는 열정을 더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대의입니다.

그것은 믿을 만한 것이고 붙잡을 만한 것입니다. 감옥은 신자들이 설교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다시 시험을 살펴보세요.

와우. 와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바울은 그의 투옥과 관련하여 다른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의 투옥이 무엇을 가져오는지 아는 것은 좋지만, 사실 그의 투옥이 복음의 발전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도 좋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담대해졌고, 15절에서 몇 분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전파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자신의 결론을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와우. 12절에서 18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핵심으로 돌아가기 전에, 13절에서 사용된 언어에 대해 뭔가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형제 여러분, 12절에서 제게 일어난 일이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온 황실 경비대에 알려졌습니다. 황실 경비대라는 단어, 그 생각과 다른 모든 것을 붙잡아 내 감힘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제국의 경비병으로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단어인 praetorium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서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몇몇 지역에 나오지만,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는 학계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는 번역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장소를 가리키는 것처럼 번역하고, 어떤 사람들은 군대를 가리키는 것처럼 번역합니다.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지 결정하는 데 무엇이 관여합니까? 이제, 만약 당신이 그의 투옥이 실제로 그가 총독의 궁전인 프라이토리움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번역한다면, 당신은 그의 투옥이 지리적 환경에서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주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것이 제국의 경비병을 가리키는 것으로 번역하거나 이해한다면, 당신은 특정 집단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Praetorium, 또는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신약의 다른 곳에서, 특히 마가복음 15장 6절, 요한복음 18장 28절, 요한복음 18장 33절, 사도행전 23장 35절에 나타납니다. 이 단어는 총독의 거주지를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복음서에서는 빌라도의 거주지를 지칭하는 데 더 많이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또한 황제의 경호원이나 경호원이 거주하는 장소, 예를 들어 주지사 저택 근처의 막사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맥락을 살펴보면 고대에 이 단어의 세 번째 의미나 용법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듯합니다. 주지사나 황제의 저택을 실제로 지키는 특정 집단, 정예 군사력을 가리킵니다. 황제의 궁전을 지키는 이 정예 집단이 실제로는 4시간마다 교대 근무를 바꿀 정도로 고도로 숙련된 정예 집단이라는 것을 알고 싶을 것입니다.

4시간마다 왜냐고 물어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질문을 해서 기쁩니다. 제가 당신에게 그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이 실제로 생각하고 잘 따라할 수 있도록 집에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약물 탐지견 중 일부는 실제로 약 1시간 동안 일한다고 말했고, 너무 지쳐서 데려가서 회복하도록 돕고 다른 날 다시 데려와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매우 세세한 작업을 위해 훈련받았고, 단 1시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국의 엘리트에게 그들이 한 시간, 한 번에 4시간 동안 거기에 있는 이유는, 실례합니다, 그들이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그 시간 동안 경계 상태로 주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런던에 가서 버킹엄 궁전이나 영국인들이 서 있는 그런 곳에 갔다면, 가끔 그들이 서 있고, 마치 조각상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한 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도의 집중력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일정 시간 동안만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경비병 교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국의 정예 부대의 경우, 4시간이 그들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지능, 적성, 인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최대 시간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사람들이 그의 감옥을 지키도록 할 기회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4시간마다 설교를 듣는 청중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목사가 그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들은 변할 것이고, 대화를 나눌 것이고, 그는 말할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무엇 때문에 여기 왔습니까? 그리고 이 고도로 교육받은 기독교 지도자는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단순함을 말하게 됩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그의 투옥으로 인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은 투옥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제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투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헨슨은 빌립보서에 대한



주석에서 바울이 궁전 경비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카이사르의 특별 경호원으로 복무했던 로마 군인의 가장 정예 집단을 가리킨다고 썼습니다.

철자를 잘못 써서 죄송합니다. 이 9,000명의 정예 군인들은 때때로 카이사르 자신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카이사르를 폐위시키고 승진시켰습니다.

칼리굴라, 혹은 아우구스티누스 황제로 알려진 사람이 암살된 후, 그들은 클라우디우스를 왕좌에 앉혔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네로의 통치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의 경호원은 바울을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카이사르나 카이사르의 경호원보다 더 높은 권세를 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만인의 경배를 받도록 높이신 분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렇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몽고메리가 더 나아가 말하듯이, 고난을 통한 복음의 전파에 대한 바울의 말은 그의 삶이 비그리스도인과 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도록 담대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격려적이지만, 말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당신의 삶에서 사실이라면, 당신은 고난이 당신을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도록 내버려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고 당신 안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곳에 불평하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용기, 흥분, 기쁨을 가졌다면, 이 구절에서도 말했듯이, 저는 이 일에 대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 모든 흥분을 가졌다면, 제임스는 제임스 몽고메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에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의 태도와 태도는 어떨

것인지 물었을 것입니다. 제가 빌립보서로 넘어가기 전에도 그의 제안은 고난이 우리를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강화하고, 담대하게 하고, 힘을 실어주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내면에서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바울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해 고난을 겪는 것은 감옥의 벽이 주변에 있고, 그가 모든 것을 가두어 두도록 보장하는 물리적 경비원을 볼 수 있지만, 그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는 절망감을 느끼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한 번 들어본 적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평화는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투옥을 통해 무엇을 이루셨는지 생각하고, 내가 보기에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이루고 있는지 자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이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내게 일어난 일이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경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의 갇힘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 거기에 표시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형제들 대부분은 내가 갇힌 것으로 인해 주님 안에서 확신을 얻었으므로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하는 데 훨씬 더 담대합니다. 이 구절에서 형제들이 두 번 언급된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런 다음 2장을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급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 강의에서 형제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바울이 서로에 대한 연대와 애정을 보여주기 위해 허구적 친족 관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15절을 논의하기 위해 마지막 줄에 표시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형제들은 내가 갇힌 것으로 인해 주님 안에서 확신을 얻었으므로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하는 데 훨씬 더 담대합니다 .

그는 그들을 대부분 나의 형제라고 부른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그리고 그 생각을 붙잡아두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 문제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 15절은,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즉, 대부분의 나의 형제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선의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기적인 야망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진심으로가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내 고통을 증가시키려는 의도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짓된 동기에서든 진실한 동기에서든 그리스도가 모든 방식으로 선포된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기뻐합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며 끝맺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 기뻐할 것입니다.

그게 당신이 기뻐하는 것인가요? 이 구절을 풀어보기 전에, 신실한 사람과 불신실한 사람이 어떻게 이 구절을 다루었는지에 대한 패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아주 훌륭한 동료가 Frank Tillman이라는 이름의 주석에서 이 구조를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Frank는 실제로 우리의 주의를 이 문법적 구조, 즉 바울의 친구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에 꽤 잘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의 경쟁자들도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바울의 친구들은 선의로 설교합니다. 바울의 경쟁자들은 시기와 경쟁심으로 설교합니다. 바울의 친구들은 사랑으로 설교합니다.

바울의 경쟁자들은 진심으로가 아니라 이기적인 야망으로 설교합니다. 바울의 친구들은 바울의 경쟁자들이 해를 끼치려고 의도하거나 해를 끼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친구들은 그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경쟁자들의 동기는 무엇이였을까요? 그들은 그의 고통을 증가시키고 싶어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투옥을 이용하고 싶어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수석 목사가 되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병이 납니다. 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랫동안 외출해야 합니다. 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또는 나쁜 결정을 내려서 곤경에 처해서 잠시 외출한 후에야 그 장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그가 남긴 좋은 일을 계속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나타나기 전에 그의 다리를 자르고, 목을 자르고, 어깨를 자르는 것이 우리의 기회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악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이기적인 야망으로 설교합니다.

이 설교자들의 특징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바울이 그들을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을 앞서 상기시켰습니다. 당신이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라고 말할 만큼 당신이 사랑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바울이라면 실제로 그들을 저주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이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지적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어떤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전파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한 가지를 간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들의 동기는 불순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만약 당신이 저와 같았다면, 당신은 한두 명의 텔레 복음사가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고, 그 사이에 온갖 속임수를 쓰고 온갖 조종 전술을 사용하여, 나는 이 사람을 죽이거나 그곳에서 나가게 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저와 같았다면, 당신은 어떤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동기가 의심스러울 수 있는 일을 하고 보여주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려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들을 짓밟는 첫 번째 사람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다른 곳에서 만난 다른 적대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들 중 일부를 사탄에게 넘기고 싶어합니다. 바울에게 기회를 주면 그는 가능한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그것을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자기 동기를 가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질투와 경쟁심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잠깐 그 두 단어를 살펴보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부러워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거나 강요하고 싶어합니다.

질투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 있는 방식과 하는 일에 대한 동기가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가 한다는 높은 수준과 감각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질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인 경쟁을 보세요.

우리는 미국에서 이 강의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에서는 뭐라고 부를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 부정적 경쟁이라고 부를 겁니다.

경쟁심이 있는데, 아마도 바울과 어떤 종류의 경쟁을 하고 있고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 신학에서 눈에 띄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바울에게 삶은 경쟁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경쟁은 불필요합니다. 바울의 더 넓은 신학에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정한 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몸과 공동의 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 중 누구도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가 은유적 신체를 사용하여 정의할 전체론적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손이 머리와 경쟁하려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경쟁은 중요하지 않지만, 바울은 그의 신학적 틀이 사랑과 교제와 동반자 관계와 동지애라는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도 어느 정도 시기와 경쟁을 행하는 사람들을 적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진심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에서의 그의 투옥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내 말로 표현하자면, 폴의 말이 아니라, 아마도 가장 최근의 회의에서, 이 폴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다음 폴처럼 거기에 있을 수 있도록 그를 죽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폴이라는 녀석은 너무 유명합니다. 왜 그는 그렇게 유명한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걸까요? 우리는 그와 같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그의 존경과 권위를 얻고 싶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그는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그래야만 한다. 글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생각해 보고, 만약 당신이 질투와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알고

있다면, 그들이 당신이 만나서 포옹하고, 훌륭한 형제, 훌륭한 자매라고 말할 첫 번째 사람 중 하나일까? 우리가 방금 만나서 기쁘다.

당신은 훌륭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요. 숨을 참고 30분 동안 말을 할 수 있나요? 고치려고 하거나 적처럼 대하지 않고요? 풀이 말하길, 잠깐만요.

큰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설교자나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부정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지만, 그들의 핵심 기반과 핵심 메시지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면, 그들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것은 아폴로라는 이름의 설교자가 들어와 강력한 설교를 한 사도행전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아폴로는 매우 웅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 강의 초반에 제가 지적했던 그리스 수사학의 모든 기술을 배웠고, 사도행전에서 말했듯이 그는 웅변적으로 말했지만, 그는 끔찍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옆으로 데려갔고, 그들은 그를 부드럽게 도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아폴로스에 대해 들었을 때, 그는 실제로 기독교에서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의 이름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람들이 그를 따르거나 바울이나 베드로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 방식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들은 이기적인 야망에서 설교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은혜를 전파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 형제 자매처럼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친구가 최근에 은혜와 교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는 목사로 있는 교회에 한 남자가 와서 매우 화가 난다고 하면서, 그 남자가 그에게 "당신이 이 교회의 목사인가요?"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친구가 잠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예"라고 하면 그가 저를 때릴지 말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는 "그래도 그냥 예라고 했어요"라고 말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교회에 제 아내가 있나요? 그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제 아내를 아십니까? 제 아내는 이 사람이고, 제 아내는 저 사람이고, 그는 아내에 대한 온갖 끔찍한 일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아내에 대한 끔찍한 일들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그의 미소가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남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을 보고 잠시 멈춰서 그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녀와 같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신은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신이 여러분의 아내의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좋은 것을 본다면 함께 기뻐합니다.

와우. 바울은 어떤 사람들은 이기심, 시기심, 경쟁심, 진심이 아닌 일로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나는 계속 기뻐합니다.

와우. 바울이 설명했듯이 교회는 그 구성원들의 복합체이며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노력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목욕물과 함께 성급히 버리지 말자. 내가 미국에서 배운 표현 중 하나인데, 가끔은 거꾸로 이해하게 된다. 그리스도가 사람의 삶에서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결국 누가 영광을 받는지 살펴보자. 무엇이 우리에게 향하는지와 무엇이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 홍보되는지 살펴보자. 그리고 무언가가 우리에게 향한다면, 그것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더 넓은 그림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대의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기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19절에서 지적했듯이, 빌립보 친구들의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을 통해, 그의 투옥이 구원이나 구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중 몇 가지에 대해 여기저기서 언급하기 위해 조금 돌아올 것이지만, 여기서 이 표현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투옥이 구원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18절 끝에서, 네, 그리고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9절: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으로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끝날 것임을 압니다. 그리스어로 이 단어는 우리가 구원으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학문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당신이 해설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우리의 성경 연구 시리즈를 따라간다는 사실은 당신이 호기심이 많은 개인이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배우고 성장하려는 기독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이미 몇몇 해설을 접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더 큰 주석을 보면 정의를 설명하는 데 얼마나 많은 페이지가 할애되어 있는지 놀랄 것입니다. 구원이나 구출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가 그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을 통해 구원이 될 것이라고 말할 때, 그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가 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 Soteria 또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구원받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 풀려나는 것, 구출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늘 법정에서의 정당화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은,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이 내 처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

대부분 학자들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논쟁하며, 둘 중 하나를 정당화하려고 많은 페이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둘 다를 지칭할까요? 저는 얼마 전에 은퇴한 저명한 신약학자 고든 피가 빌립보서에 대한 주석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나의 궁극적인 구원과 현재의 칭의로 판명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을 통해, 나의 진지한 기대와 소망이 재판에서 실현될 때. 그리고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공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면에서 확대됩니다.

내가 종신형을 받은 사형을 선고받든, Fee의 의역에 따르면 Fee는 그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도우면 그는 감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감옥에서 구원을 받든 받지 못하든, 그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바울은 희망이 어찌면, 어찌면 아닐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바울에게 희망은 그가 붙잡기를 기다리는 미래의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기도와 도움을 통해 이것이 그의 몫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야망을 계속 표현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기쁨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데도 그는 20절에서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내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와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게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실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말입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익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살게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열매 맺는 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는 갈림길에 서 있고,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둘 사이에서 힘겨워합니다. 떠나고 싶지만, 그는 계속해서 당신을 위해 잠시 머물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기도가 그의 구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기쁨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모독하지 않고 그의 몸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이나 존귀를 돌릴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고대 지중해 문화의 한 가지 주요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명예와 수치심은 문화의 주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귀속된 명예라고 부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획득한 명예.

귀속된 명예는 당신이 태어나면서 받는 명예입니다. 당신은 좋은 가문, 큰 가문에 태어나고, 당신은 물려받은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고, 당신은 명예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획득된 명예가 있는데, 이것은 당신이 위대한 일을 해서 얻는 종류의 명예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문화에 융합되어 있습니다.

둘 사이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명예와 수치심은 고대 지중해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대대를 모욕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 명예살인에 대해 듣습니다. 특정 문화나 종교에 속한 여성이 가족 내에서 사람과 결혼하면 명예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 사람은 가족을 모욕합니다. 가족을 모욕하는 경우 죽음이 관습입니다. 사실, 자신을 모욕하기 위해 잘못된 사람과 결혼한 딸을 죽이는 남자는 실제로 어느 정도 명예로운 훈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살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은 사회에서 공경받기 위해 살고 싶어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이 자신을 부른 사람에게 공경을 가져다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전파해 온 그리스도의 이름에 수치를 가져오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공개적인 조롱이나 당혹감을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가 고통 속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와우. 폴의 욕망. 바로 이 근거로 그는 자신의 욕망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그에게는 살든 죽든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사실, 그가 살려면 무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글쎄요, 그가 그렇지 않고 사형을 선고받는다면 그것도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운명은 어느 쪽이든 방해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가 살았다면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계속할 기회를 얻었을 것이고, 그것은 빌립보 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그는 주님과 함께 갑니다. 그는 더 나은 곳으로 갑니다. 그는 심지어 왕관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머물러야 빌립보 교회에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겁쟁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놓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물론,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폴이 감옥에 있었던 곳을 생각하면, 오, 죽음은 진짜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때로는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 그의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서는 21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죽는 것이 이익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에게 열매 있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나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 나는 말할 수 없다. 나는 둘 사이에서 곤경에 처해 있다. 나의 소망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것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 더 필요합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나는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을 것임을 압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충분한 이유가 내가 여러분에게 온 것을 인해 나 안에서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와우. 바울은 떠나고 싶어합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와 재결합하여 결국 그리스도, 다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교실에서, 아니, 대학에서 가르치던 시절에, 아마 5년 전쯤에 있었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바울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날 빌립보서의 이 부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수업에는 약 16~18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소녀가 구석에 앉아 흐느끼며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쿨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교수님. 그래서 방해하지 않았어요. 방해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학생들은 수업 직후에 제 사무실로 왔는데, 제가 선생님께 잘 지내시냐고 물었기 때문이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와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톨릭 예수회 대학에서 가르치며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교수님, 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그녀는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구가 자살했습니다. 그녀의 친척 중 한 명이 얼마 전에 자살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나를 만날 시간이 너무 가까워서 그녀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그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다음 일은 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업에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말을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고, 죽는 것은 이득입니다. 저는 갑자기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목숨을 끊는 것은 제 이기적인 일이겠지만, 저는 여전히 뇌진탕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자살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녀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녀와의 대화에서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그날 그녀는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바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녀는 죽지 않을 희망을 찾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감옥의 벽이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가 바울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복음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틀렸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교도관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용기를 얻었고,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기적인 동기와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지만, 바울은 "나는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됩니다. 여기서 그는 들어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기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죽는 것은 이득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진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있으며, 지옥의 문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세션을 다음 단계로 천천히 이끌어 줄 인용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 실바는 빌립보서에 대한 그의 주석에서 빌립보서 1장 25-26절에서 사도가 자신의 석방으로 이루어질 목적에 대한 감동적인 묘사로 빌립보인들을 위로한다고 썼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진전, 그 믿음에 대한 그들의 기쁨, 바울을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들의 넘치는 영광. 바울은 이미 12절에서 복음의 진전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빌립보가 진전에 참여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복음의 발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구 문명에서 큰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오해하지 맙시다. 서구 세계를 넘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마약 중독자들은 삶이 바뀌는 것을 보고 있으며, 구원받고 있습니다.

저는 페티시 숭배자들이 그리스도께 목숨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우상을 불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옥은 바울을 막을 수 없었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추종자, 충실한 추종자, 설교자라면 아무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들에게 인내심을 갖자. 은혜를 베풀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에서 일하시도록 허락하자. 그러면 결국 그분,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다시 한번, 성경 연구에 대한 우리의 과정을 따라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을 때, 여러분이 이것을

개념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면화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 우리가 섬기고 우리의 주님이자 주인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양으로 가득 찬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따라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는 Dan Darko 박사와 그의 감옥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입니다.

여기는 세션 10, 복음의 진전, 빌립보서 1장입니다.